

한국어 표준 말하기 시험 측정
도구를 위한 기초 연구
- 모의 인터뷰 평가와 학습자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이동은**·이유경***·최은지****

- I. 들어가기
- II. 선행연구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2. 실험 평가의 절차 및 내용
 - 3. 등급 기술 및 평가 범주
- IV. 인터뷰 담화 분석
 - 1. 과제 수행 분석
 - 2. 주제 수행 분석
 - 3. 내용의 구성 분석
- V. 나오기

【국문초록】

이 논문은 표준화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학습자 인터뷰 말하기 평가 실험과 담화 분석을

-
-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연구교수
 - ***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강사
 - ****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강사

실시하여 평가 도구 개발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어 말하기 시험 평가 도구를 위한 모의 인터뷰 시험과 학습자 담화 분석을 실시하고 등급 기술과의 부합성 검증은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1)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평가 실험과 평가 담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술을 하였다. 3) 한국어 말하기 평가 범주와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4) 한국어 말하기 평가 모형을 제시하여 평가 도구 개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학습자 모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전사하여 ‘과제 수행’ 분석, ‘주제 수행’ 분석, ‘내용의 구성’ 분석을 통해 단계적 기술이 적절한지를 보이고자 했다.

본고의 의의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말하기 실험 평가에서 학습자들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말하기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분석적 평가가 지향하는 타당성과의 긴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담화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설계한 평가 범주가 적절함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 개발·제시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를 위한 모형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말하기 교육을 위한 교수 및 학습 자료로 응용될 수 있다.

I. 들어가기

말하기 능력 평가는 수행 평가(Performance Test)이며, 구두 언어의 표현 영역과 관련된다. 따라서 지필 고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¹⁾

1) 현재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중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학습자의 구어 표현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목표와 내용, 숙달도별 등급 기술, 평가 체제, 평가 문항 개발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본령인 말하기 능력을 실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최근 한국어 교육계에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등장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표준화된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다양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로 응용되어 시행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 모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전사하여 ‘과제 수행’ 분석, ‘주제 수행’ 분석, ‘내용의 구성’ 분석을 통해 단계적 기술이 적절한지를 보이고자 한다.

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세계한국말인증위원회),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EPS-KLT, 한국어세계화재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평가들은 모두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영역을 평가하고 있으며, KLPT와 EPS-KLT는 듣기와 읽기 영역만을 평가하고 있다.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말하기 평가의 경우는 특정 국가와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 다른 외국어의 경우 실용도적인 측면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말하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의 시행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II. 선행연구

이전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은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에 기반을 둔 표준화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논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외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 있어 인터뷰 대화로 이루어지는 ACTFL의 평가 체제가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타당한지에 대해 지적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국내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와 관련된 연구에는 노대규(1983), 원진숙(1992), 공일주(1993), 김정숙·원진숙(1993), 정광 외(1994), 전은주(1997), 김유정(1999), 정화영(1999)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노대규(1993), Sohn(1992), 공일주(1993), 정광 외(1994), 전은주(1997)의 연구는 ACTFL에 기반을 둔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기준 마련과 관련된 논의이고 원진숙(1992), 김정숙·원진숙(1993), 김유정(1999), 정화영(1999)의 연구는 실제적인 말하기 특성과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국어 담화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이다.

이후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한국어 구어 담화의 분석과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들에는 현재 말하기 평가 방식인 인터뷰 평가가 실생활의 다양한 대화 맥락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박성원(2002), 지현숙(2005), 신동일 외(2006)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박성원(2002)는 ‘인터뷰’ 형식의 말하기 숙달도 평가 형식이 한국

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적합한가에 의문을 가지고 ACTFL OPI 체계를 가지고 말하기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담화 분석을 통해 ‘인터뷰’ 형식으로 처리되는 현재 한국어 말하기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현숙(2005)의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 담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기관의 말하기 평가 자료를 녹음, 전사하여 담화 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구어 능력은 언어구조 능력, 전략 능력, 텍스트에 대한 지식, 화용 지식, 사회언어 지식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상호작용 능력 이론’이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신동일 외(2006)은 면대면 인터뷰 평가 상황에서 추출되는 대화를 분석하고 문헌에서 소개되는 실제 대화의 특성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 지에 초점을 두어 인터뷰 평가의 구인 타당도를 논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인터뷰 평가에 대한 담화 연구가 부족함을 주목하고 담화 분석에 기반을 둔 말하기 평가 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말하기 숙달도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연구들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ACTFL OPI나 FSI OPI와 같은 외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체계를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ACTFL OPI나 FSI OPI의 경우 실제 대화의 특징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ACTFL OPI나 FSI OPI를 실험을 통해 검증한 연구들에서 상급과 중급 학습자들의 등급별 차이점을 구별해 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따라서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말하기 평가 체계의 마련

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형식으로는 실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나 구어의 상호작용능력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면 타당한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평가 이론에 근거한 말하기 평가 구인을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여 이 결과에 대한 담화 분석을 통해 말하기 평가의 특성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TOPIK 말하기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해 평가 구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한 말하기 모의시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이 시험을 통해 얻은 학습자 말하기 담화를 분석²⁾하였다.

2)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은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또 담화와 다른 언어 패턴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담화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와 맥락, 담화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특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담화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을 구어담화와 문어담화로 나누고 그 차이를 인식함은 물론 언어사용의 다양한 스타일, 장르, 형식에 주목하게 되는 자연 언어 환경에서 일어나는 언어 관찰의 경향을 보인다. Schiffrin(1994)은 담화 분석의 접근 방법을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 상호작용사회언어학(Interactional Sociolinguistics), 민족지학 의사소통(Ethnography of Communication), 화용론(Pragmatics), 대화분석(Conversational Analysis), 변이분석(Variation Analysis) 등 6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은 상호작용사회언어학(Interactional Sociolinguistics)으로 실제 상호작용 언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이동은 2000, 재인용). 이는 전사대본에서 발견되는 언어구조를 이해하는 문법적 분석은 물론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현상에 대한 지식을

담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특징은 학습자들이 받은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각 등급별 평가 결과별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TOPIK 결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에 이 시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범주별로 구분되어 평가하는 분석적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으며 실험 평가에 사용한 평가 범주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OPIK 평가 기준과 평가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 내용을 정리하고 각 수준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기 평가를 실시한 후 그 내용에 대한 담화 분석을 통해 TOPIK 말하기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실험 평가의 절차 및 내용

본 모의 시험은 다음의 세 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첫째, 말하기 실험 평가를 위한 각 급별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각 질문지의 문항은 TOPIK 등급별 목표에 포함되는 기능, 어휘, 문법, 내용/주제를 감안하여 질문 문항을 구성했으며 각 등급별로 5문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 문항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긴장관계를 풀어 피평가자로 하여금 보다 자연스러운 발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얻어 이후의 질문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웍업’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이후의 질문 내용에서도 초급에서 고급으로 발전될수록 사적이고 개인적인 내용과 주제에서부터 사회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내용과 주제로 넓어지도록 위계화하였으며, 원하는 여행을 설명하거나, 여행지를 추천하거나, 당시의 이슈가 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전공 영역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설명하는 등 최대한 실제의 대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습자가 긴장하여 질문을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두로 질문을 하고 이를 적은 질문지를 학습자가 보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특히 그림이나 표, 그래프를 보고 말하는 항목에서는 학습자들이 직접 보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질문 내용은 각 등급의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제와 기능, 어휘 및 문법을 포함하여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시험 평가를 위해 각 등급마다 제시한 5개의 질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능과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표 1> 실험 평가 문항 내용

구분	문항	기능	주제
초급	1	읽업	자기소개
	2	간단한 주제 설명하기	주말 활동
	3	그림보고 간단한 정보 설명하기	교통 수단
	4	그림보고 묘사하기	공원
	5	간단한 자료보고 선택해 이야기하기	여행
중급	1	읽업	한국 생활
	2	추천하기	여행, 유학
	3	표나 그래프 설명하기	결혼
	4	사진보고 설명하기	한국의 명절
	5	계획 이야기하기	직업, 미래 계획
고급	1	읽업	한국 생활
	2	객관적 정보 제공하기	학교, 기관, 제도
	3	표나 그래프 설명하고 분석하기	자산 운용
	4	전문 분야에 대해 설명하기	전공, 전문 분야
	5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이야기하기	저출산, 노령화 사회

본 연구에서는 위의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문항 가운데 각 등급별 학습자들이 전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나 내용이 포함된 한 두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급에서는 ‘자료보고 선택하여 이야기하기’에 해당되는 5번째 문항인 ‘여행’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중급에서는 ‘여행과 유학 장소’에 대한 ‘추천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급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이야기하기’ 기능의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한 주제의 담화를 구성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에 참가할 각 등급별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말하기 실험 평가를 위해 각 등급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는 학습자들을 선정하였다. 말하기 실험 평가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현재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급별로 일정 기간 이상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또한 최근 1년 내에 TOPIK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로서 이들의 국적별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실험 참가자 국적별 인원

등급	중국	일본	미국	기타	총 인원
초급	7	2	3	3	15
중급	6	9	0	1	16
고급	5	6	3	1	15
총계	18	17	6	5	46

셋째, 학습자 발화를 전사하고 담화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정리하였다. 각 학습자들의 담화 분석을 위해 각 등급 별로 말하기 시험 평가 시 녹음한 음성 자료를 모두 전사했다.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하기 평가 기준과 실제 각 학습자들의 등급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각 등급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구조적, 화용적인 측면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반이 될 자료들이다.

자료는 전사 후 각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여 어절 통계와 문장 수 통계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각 주제에 대해 사용한 내용과 기능 등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실험 평가의 담화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3. 등급 기술 및 평가 범주

본 연구에서는 김정숙 외(2006)에서 정리하고 있는 말하기 평가 기준 및 평가 범주를 사용하여 담화 분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각 등급의 기준 및 평가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등급 기술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용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말하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매우 친숙한 주제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거나 짧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문법과 발음이 많이 부정확할 수 있다.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간단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한 주제에 관해 질문하고 대답하거나 짧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체국, 은행 등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조사와 연결 어미를 사용해 이야기할 수 있으나 문법과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나 기능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말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 기능을 부분적이거나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거나 짧은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격식적 맥락과 비격식적 맥락을 구분해 말할 수 있다. ·개별 음소의 발음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억양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해 유창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일반적 업무 맥락과 학업 맥락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말하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발화 상황과 대화 상대자에 따라 구분되는 발화의 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식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의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 업무 맥락이나 학업 맥락에서 요구되는 말하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 · 억양 등의 발음에서 모국어의 영향이 나타나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식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의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 업무 맥락이나 학업 맥락에서 요구되는 말하기 기능을 대체로 수행할 수 있다. · 공식적 맥락과 비공식적 맥락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 사용하며, 가장 적절한 언어 형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 평가 범주

말하기 실험 평가를 위한 평가 범주에는 ‘과제 수행’, ‘주제 수행’, ‘어휘·문법’, ‘발음’, ‘유창성’, ‘사회언어적 능력’, ‘내용의 구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7개의 평가 범주 가운데 ‘과제 수행’과 ‘주제 수행’, ‘내용의 구성’에만 초점을 두어 담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각 급별 담화 구성 능력에 보다 초점을 두어 맥락에 맞는 기능의 사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에 이 세 가지 범주가 부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과제

수행', '주제 수행', '내용의 구성' 범주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과제 수행: 각 문항에서 수행하도록 의도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의도와 같이 알맞은 기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정한다.

㉡ 주제 수행: 각 등급의 학습자들은 등급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 내용에 알맞은 주제와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정한다.

㉢ 내용의 구성: 질문 내용에 알맞은 내용에 맞는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정한다. 여기에는 수험자가 산출해 내는 발화의 양과 구성, 단위 등이 얼마나 잘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각 등급의 학습자들이 받은 평가 점수와 학습자 발화에 특징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서 말하기 평가 기준이나 평가 문항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IV. 인터뷰 담화 분석

4장에서는 앞서 밝힌 것처럼 응답자들에게서 얻은 인터뷰 담화를 '과제 수행', '주제 수행', '내용의 구성'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과제 수행 분석

'과제 수행' 측면에 대한 단계별 서술은 다음과 같다.

<표 3> ‘과제 수행’의 평가 기준

5단계: 요구되는 과제를 전체적으로 아주 잘 수행한다.
4단계: 요구되는 과제를 잘 수행한다. 부분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수행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하다.
3단계: 요구되는 과제를 최소한의 완결성을 가지고 수행한다.
2단계: 요구되는 과제를 부분적으로 수행한다. 전체 과제 중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전체 과제를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1단계: 말하기 과제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거의 수행하지 못한다.

즉, ‘과제 수행’ 측면에서는 피평가자가 질문자의 의도에 적합하게 수행하는지, 그 수행이 지속적인지, 과제의 완결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에게 제시한 문제 중 초급의 5번 문제는 ‘선호 이야기하기’ 과제³⁾를 담고 있었다.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와 설악산 여행의 기간, 비용, 숙소, 여행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자신이 선호하는 여행은 어떤 것인지를 자료에 근거해서 말하게 하였다.

3) 선호 이야기하기 과제는 CEF에서 제시한 6가지의 미시 기능 범주 중에서 태도를 표현하거나 요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CEF에서는 기능을 거시적 기능(Macrofunction)과 미시 기능(Microfunction)의 두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Luoma 2004:33), 이러한 미시 기능은 사실적 정보를 주거나 요구하기, 태도를 표현하거나 요구하기, 설득이나 제안하기, 사교 표현하기, 담화 구성하기, 의사소통 교정하기의 6개 범주로 나뉜다.

5. 가고 싶은 여행 말하기

- 1) 여러분은 다음 주에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 2) 다음은 두 여행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 3) 왜 그것을 선택합니까?

제주 여행		설악산 여행	
기간	12.2(금)~12.4(일)	기간	12.3(토)~12.4(일)
비용	280,000원	비용	132,000원
숙소	한국 호텔	숙소	설악 모텔
여행 내용	제주 민속촌, 드라마 촬영장 방문 (대장금, 올인)	여행 내용	설악산 등산, 동해안 관광

이 과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선호하는 대상’을 언급하고 ‘선호하는 이유’를 말하는 순서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답화 1>

응답자 9: 음 제가 제주도 가고 싶어요. 음 제주도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 이니까 음 음 이니까 시간이 또 만약에 설악산 가면 이틀 음 이거 이거 아 이거 시간보다 이거 시간 많이 많이 걸려요. 많이 아 그리고 드라마 중 촬영장 좋아해요. 음 중국에서 대학교 전공가 신문방송학과 그래서 이러 이런 거 좋아해요.

<답화 2>

응답자 14: 여기는 어 제주도 여행 아니면 설악산 여행 어 기간이 비슷하지만 어 비용이 진짜 달라요. 제주도 가는 거는 엄 이십 팔만원 데요. 어 설악산 가고 싶으면 십 삼만 이천원인데 저도 지금 제주도 여행 지금 선택했으면 제주도로 선택할 수 엄 할 거예요. (중략) 드라마 촬영장 방문 어 대장금 올인도 엄 엄 데 엄 볼 수 있으니까요. (중략) 어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을 선택했어요.

<답화 3>

응답자 10: 저는요 제주도 여행 선택할 거예요. 그 왜냐면 거기가 섬이고 그리고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가 가면 한국이 아니고요. 또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

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가 보고 싶었어요.

앞선 예에서처럼, 응답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위의 담화들에서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을 따져보면 <담화 1>, <담화 2>와 <담화 3>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즉, <담화 1>과 <담화 2>에서는 주어진 자료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연결 지어 선호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담화 1>에서는 자료 속의 드라마 촬영장 방문이나 제주도 민속촌 방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므로 제주도 여행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담화 2>에서도 설악산보다 제주도가 비싸지만 자신이 현재 충분히 치를 수 있으며, 자료 속의 여행 내용이 마음에 들어 제주도 여행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담화 3>에서 응답자는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듣거나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제주도가 섬이고 자연이 아름다워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을 근거로 제주도 여행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세 응답자 모두 완결성 있게 과제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담화 1>과 <담화 2>의 경우는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선호하는 대상을 선택하였고 <담화 3>의 경우는 질문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담화 1>은 <담화 2>에 비해 지속적인 수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담화 1>에서 응답자는 제주 여행 기간이 설악산 여행보다 긴 것이 자신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담화 1>의 응답자는 지속적으로 과제 수행을 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담화 2>에서 응답자는 하루 차이가 나는 여행 기간은 그다지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고, 다만 비용의 차이가 있으나 자신에게는 상관없으며,

여행 내용이 마음에 들어 제주도를 선택했다고 하여 과제를 지속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답화 4>

응답자 7: 제주 여행 좋아요. 음 나 음 난 제주 여행 좋아요. 십이월 이일부터 십이월 삼일까지 갈 거예요. 돈은, 돈은 2만, 2백원, 이백 팔십만 원 필요해요. 음 제주도에서 한국 호텔에서 자요. 잘 거예요. 그리고 제주 민속촌, 음 제주도에서 제주 민속촌 드라마 촬영장 하고 볼 거예요.

<답화 5>

응답자 13: 지금예요.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즐거운 여행 상황 소개하겠습니다. (중략) 그래서 여러분 가면 꼭 등산화 신고 어 먼저 꼭 쉬고 어 다음에 가족들이 친구들이 같이 가면 즐겁게 지낼 수 어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는 것은 이거 물을 많이 가지고 가요.

<답화 4>에서 응답자는 주어진 과제를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응답자는 제주도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여 선호하는 대상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자료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제주도 여행의 계획을 서술하는 식으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답화 5>의 경우는 선호하는 대상을 선택하라는 주어진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는 선호하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소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응답자는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⁴⁾고 볼 수

4) 주지할 만한 점은 응답자 13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매우 유창한 수행을 보였다라는 점이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초급 수준의 응답자들이 보여준 평균적인 발화 어절 수는 79어절이었으나 응답자 13은 351어절을 생산해 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5번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발화를 ‘과제 수행’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담화 분석을 시도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었다. 또한 평가자들의 ‘과제수행’에 대한 분석적 평가의 점수도 각각의 유형 분류와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표 4> 초급 5번 문항의 응답 담화의 ‘과제수행’ 기준에 따른 유형

유형	응답자수	평균점수 ⁵⁾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이유, 선호하는 대상을 밝히는 유형	4	4.5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이유, 선호하는 대상을 밝히되 지속적인 수행을 보이지는 못하는 유형	3	4.2점
개인적인 경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이유, 선호하는 대상을 밝히는 유형	4	3.2점
선호하는 대상만을 밝히고 선호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부분적으로만 수행하는 유형	2	2.3점
주어진 기능에 다른 기능으로 응답하는 등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유형	2	1.3점

이상과 같이, 학습자들이 보인 담화를 분석하여 앞서 한국어 말하기 평가 체계를 위해 서술하였던 ‘과제 수행’ 범주의 단계별 기술이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적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 월등하게 유창한 발화를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응답자 13의 발화가 과제 수행의 측면에서는 전혀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된 점은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이 서로 별개의 범주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각각의 기준에 대한 평가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2. 주제 수행 분석

‘주제 수행’ 측면의 단계별 기술은 다음과 같다.

<표 5> ‘주제 수행’의 평가 기준

5단계: 요구되는 주제를 넓고 깊게 청자를 고려해 아주 잘 표현한다.
4단계: 요구되는 주제를 잘 표현한다. 부분적으로는 매우 잘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뛰어나지는 못하다.
3단계: 요구되는 주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무난하게 표현한다.
2단계: 요구되는 주제를 부분적으로 표현할 뿐 기본적인 내용도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1단계: 요구되는 주제를 거의 표현하지 못한다.

중급 단계의 두 번째 문항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하는 문제로,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 대답하는 것이었다.

2. 추천하기(정보 제공)

- 1) ___씨 고향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 친구에게 어떤 곳을 추천하시겠습니까?
- 2)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에 대해 말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추천해 주세요.
- 3) 한국 친구가 씨 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어떤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이 중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한 응답자의 발화를 살펴보겠다.

<답화 6>

응답자 15: 추천할 곳은 엄 저희 학교. 저희 학교 네 제 생각으로 저희 학교 아름답고요.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교니깐 갈 만하고. 그 근처에 엄 그거 있어요. 그 게리 박물관. (중략) 어 미술 박물관인데요.

그 장소가 엄 산 산 위에 있어 가지고. 그 관찰 관찰? 뷰? 네 뷰도 좋고요. 하고 잘 아마 그 어 그 네도 잘 만들어 놓고요. 어 또 다른 데 음 해변 세레모니 카페어라는 그 해변 있는데 그게 또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답화 7>

응답자 3: 아 항주에서는 소호가 제일 유명함 유명해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도 많이 오시고요. 음 좀 특장도 많이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답화 8>

응답자 7: 우리 사이타마 현은 특별히 유명한 거 없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보다 일본은 과자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오시면 맛있는 과자를 드시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위에서 <답화 6>은 타인에게 자신의 고향에서 가장 가 볼 만한 곳을 추천하고 그 장소의 특징과 추천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다. <답화 7>의 경우는 가 볼만한 곳으로 ‘소호’라는 장소를 추천하고 있지만 그 장소가 왜 유명하고 가볼만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이동은(2005)에서는 이야기라는 것이 대화상대자로 하여금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설득력 있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답화 7>의 발화자는 그 장소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듣는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고려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답화 8>의 경우는 추천할 만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요구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급 단계 두 번째 문항의 응답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6> 중급 2번 문항의 응답 담화의 '주제' 기준에 따른 유형

유형	응답자 수 ⁶⁾	평균점수
특정한 장소를 추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주는 유형	2	4점
특정한 장소를 추천하였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유형	4	3.2점
정보가 부족하여 장소를 추천하지 못하는 유형	1	2점

3. 내용의 구성 분석

<표 8> '내용의 구조'의 평가 기준

5단계: 단락의 구성이 짜임새 있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 조직적으로 연결하고 관련지어 일관성 있게 내용을 전개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4단계: 단락의 구성이 짜임새 있고 매끄러운 내용 전개를 보인다. 내용의 일관성에서 간혹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3단계: 비교적 단락 구성과 내용 전개를 잘 한다. 간혹 비약이나 갑작스런 전환 등이 나타나거나 일관성을 잃을 수도 있다.
2단계: 단락의 구성이나 내용 전개가 다소 서투르게 나타난다. 단락을 연결하는 응집 장치들이 많이 부족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1단계: 단락의 구성이나 내용 전개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여 관계없는 문장들이 두서없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인 담화의 조직이나 내용 전개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거나 부정확하다.

내용의 구조적 측면은 내용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일관성이 있는지, 응집 장치들을 잘 사용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 6) 중급 단계의 두 번째 문항은 세 개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질문인 고향에서 여행할 만한 곳은 어디인지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16명 중 7명이었다.

이를 위해 고급의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볼 것이다. 고급 다섯 번째 문항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보는 것이었다.

V.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 말하기

최근 출산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문항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원인, 사회적 영향, 해결 방법의 세 가지를 차례로 서술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모든 응답자들이 주어진 순서대로 전체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구성에 서는 차이를 보였다.

<답화 14>

응답자 2: 원인은, 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데 원인은 대충 두 가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음 하나는 음 지금 여성 여서 뭐 남녀 평등 관념 가지고 있는 여성들 많아져서 여성들도 뭐 졸업 음 학교 졸업하면 하 사회 나가면 남자랑 평등하게 일하고 싶어서 (중략)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아이 낳으면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음 뭐 유치원이나 음 뭐 앞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보내야 돼요. (하략)

<답화 15>

응답자 12: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인제 경제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가 인제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양극화도 문제이기 때문에 어 한국의 인제 아이들을 보면은 아 너무 바빠요. (중략) 학원을 보내던가 아니면 다른 사교육 쪽으로 할 때는 이제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드는데 한국 물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 비싸 그 비싼 이유가 어 그 월급쟁이들이 인제 대부분인데 한국 한국의 인제 직장인들이 근데 이제 돈 버는 수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 소비 수액이

인제 아이 하나를 낳음으로써 그 소 그 소비 수액이 이제 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

<답화 14>와 <답화 15>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답화 14>의 경우는 원인을 두 가지로 항목화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답화 15>에서는 다소 정리되지 않는 내용으로 여러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답화 14>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교육비가 비싸다는 점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할 때에도, ‘원인은 대충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과 같이 말머리(preface)가 되는 답화 표지를 통해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말머리는 이동은(200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건의 맥락화에 중요한 단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 <답화 15>7)에서 응답자는 다소 산만하게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응답자가 말하는 저출산의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인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경제적 양극화 문제, 사교육의 과열 문제, 높은 소비 수액 등을 열거하여 정확하게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어, 내용의 긴밀성이 떨어지고 초점이 흐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 중에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말하여 일관성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7) 이 응답자의 경우 고급 응답자들 중에서 가장 유창한 발화를 보였다. 5번째 문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어절 수는 293어절이었는데 응답자 12의 어절 수는 959에 달할 정도였다. 이는 ILR(1999)에서 규정한 최상급화자의 특징인 연장담화(extended discourse)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듯 응답자 12가 높은 유창성을 보이고 있는데도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긴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화 16>

응답자 5: 이런 현상이 인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중략) 경쟁력이 어 떨어지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기 한국 여성에 한번 이 이런 질문을 어 했을 때 그분의 답은 조금 달라 달랐습니다. 그 분은 (중략) 한국에 그 어 그 남 그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그 인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더 값싼 인력에 이제 많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 (중략) 그러한 인력을 어 한국 그 국적을 갖게 더 쉽게 갖게 함으로써 그게 어 꼭 한국 피가 흐르지 않아도 한국 사람이 되고 (중략) 한국의 인력에 이제 어 하나가 돼서 국가를 이제 이끌어나가는 그런 그런 것도 그런 그 인식도 필요하다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하략)

<답화 16>은 응답자 5가 저출산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응답자는 한국여성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저출산 문제와는 관계가 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 문제로 내용의 비약이 심해 일관성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응집장치의 부족으로 인해 매끄러운 내용 전개가 서투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답화 17>

응답자 6: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사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역시 낮았는데 요새 (중략) 여성도 사회 생가 생활을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하지만 음 혹시 이런 현상은 어 사회 대해서 역시 어 사 어 문제도 역시 생길 수도 모르고 어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도 어 연금 연금 제도 연금 연금 복리 후생 그게 연금인데 어 연금이 어 젊은 사람의 비율에 대해서 음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어 그 노인들은 어 생활을 생활을 어 지원 해야 된 젊은이들의 연금이 어 조금씩 지금 조아 어 없어지고 에 그런 젊은이들 아 젊은 사람의 안에서도 안에서 어 회사에 다 다니지

말고 다니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학생 아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락)

위의 <담화 17>에서 응답자 6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고 응답자가 말을 더듬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외에도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응집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응집장치 사용이 불안정하다는 점 때문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처럼, <담화 18>에서 긴 문장들 간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접속사는 한 번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맥락상 밑줄 친 부분은 ‘그러나, 그렇지만’ 등의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했으나 이조차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접속사의 잘못된 선택 외에도, 연결어미 ‘-고’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의미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급 5번 문제에 대한 응답 담화를 ‘내용의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고급 5번 문항의 응답 담화의 ‘내용의 구조’
기준에 따른 유형

유형	응답자수	평균점수
내용을 논리적, 조직적으로 연결하고 관련지어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유형	4	4.6
전체적인 전개는 매끄럽지만 일부분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유형	3	3.8
응집 장치가 부족하며 잘못된 사용을 보여 논리적 전개가 부족한 유형	3	2.8
내용 전개에 대한 고려 없이 두서없이 전개하는 유형	3	2.2

이와 같이 앞서 설정한 ‘내용의 구조’적 측면의 단계별 기술이 학습자의 담화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V. 나오기

지금까지 한국어 말하기 시험 평가 도구를 위한 모의 인터뷰 시험과 학습자 담화 분석을 실시하고 등급 기술과의 부합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평가 실험과 평가 담화 분석을 실시한다.
- 2)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술을 한다.
- 3) 한국어 말하기 평가 범주와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 4) 한국어 말하기 평가 모형을 제시하여 평가 도구 개발의 지침을 제시한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언어 교육에서 담화 분석은 언어를 분석하여 담화 유형의 공통된 특성과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을 위한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교재나 교육 과정 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말하기 실험 평가의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말하기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분석적 평가가 지향하는 타당성과의 긴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담화 분석이 본 연구가 설계한 평가 범주의 적절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어 학습자들의 담화를 수집, 여러 방법론으로의 분석을 통

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실험은 평가범주 체계의 적합성 구축을 위해 학습자 담화에서 추출한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들을 포함하여 각 수준에 맞는 평가 범주의 완결성을 도모하였다. 초, 중, 고급에서 각각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학습자 군을 중심으로 이들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에 주목하면서 적합한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평가 면에서도 중요하고 교수 면에서도 중요하다. 평가가 교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양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현장에 말하기 능력 평가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개발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모형은 후속 사업인 한국어 말하기 평가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의 기초 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모형은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을 위한 교수 및 학습 자료로 응용할 수 있다.

주제어 : 말하기 능력 평가, 담화 분석, 말하기 등급 기술, 평가 모형

참고문헌

- 공일주, 「한국어 숙달 지침과 말하기 능력 측정에 대하여」, 『교육한글』6, 한글학회, 1993. pp. 91.
- 김유정, 「한국어 능력 평가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 김정숙·원진숙,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이중언어학』10-1, 이중언어학회, 1993, pp. 22
- 노대규, 「해외 자녀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시험과 평가」, 『이중언어학』1, 이중언어학회, 1983, pp. 139.
- 박성원, 「인터뷰 담화 분석을 이용한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2.
- 신동일, 「영어 말하기 평가와 담화연구 : 연계연구 가능성 탐색」, 『사회언어학』13-1, 한국사회언어학회, 2005, pp. 107.
- 원진숙,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이중언어학』10-1, 이중언어학회, 1992. pp. 24.
- 이동은, 「토론의 상호작용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동은, 「중앙아시아 한국어의 이야기 담화 분석」, 『한국어교육』, 16-2, 2005, pp. 175.
- 전은주, 「한국어 능력 평가: 말하기 능력 평가범주 설정을 위하여」, 『한국어학』6-1, 1997, pp. 153.
- 정광 외,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언어 숙달도(proficiency)의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1-1, 1994, pp. 481.
- 정화영,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방안 : FSI oral proficiency test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지현숙, 「인터뷰 시험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의 구인 연구」, 『국어교육연구』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5, pp. 79.
- Bygate, Martin, *Speaking*, Oxford: OUP, 1987.

Cutting, Joan, *Pragmatics and Discourse*, Routledge, 2002.

Luoma, Sari, *Assessing Speaking*. CUP, 2004.

ACTFL, *Oral Proficiency Interview Tester Training Manual*.

ACTFL, 1999.

Primary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 Korean Speaking Evaluation

-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the Mock Interview and the
Analysis on the Learner's Discourse -

Kim, Chung-Sook·Lee, Dong-Eun ·Lee, Yoo-Kyung ·Choi, Eun-Ji

As a stage prior to th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system that measures the standard Korean speaking skill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ecute the experiment on the evaluation of the learner's speaking skills through an interview and to execute the analysis on the learner's discourse. The goal of the paper is to present an index for a well-developed evaluation device. The procedur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Execute the evaluation test of the learners' Korean speaking skills and discourse analysis. 2) Establish the grade of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speaking skills and the description of the grade. 3) Establish the range and scope of the standard evaluation for the Korean speaking skills. 4) Propose an evaluation model on the Korean speaking skills and offer an index for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device. This paper executes the learner's mock interview.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cedural task, the subject, and the structure of the content, it makes an effort to see if a step-by-step technique is appropriat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can b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two sections. First, colloquial speech analysis in the language education analyzes the language and finds the common qualities and regulations. Next, great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colloquial speech analysis raised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evaluation category of the designed research. Lastly, this paper develops and proposes a model that evaluates the Korean speaking skills. Notably, it is asserted that the model can contribute to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because it can be used as an index in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speaking skills with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an have practical applications for teachers in their teaching materials.

Key words : Korean speaking evaluation, Discourse analysis, description of the grade in speaking, evaluation model

김정숙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전화번호: (02)3290-1977 (휴대전화) 018-233-7648
전자우편: kmjane@korea.ac.kr

이동은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연구교수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전화번호: (02)3290-2470 (휴대전화) 017-245-5037
전자우편: delee@korea.ac.kr

이유경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강사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전화번호: (02)3290-1549 (휴대전화) 016-611-1390
전자우편: idechy@hanmail.net

최은지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강사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전화번호: (02)3290-1549 (휴대전화) 016-404-0501
전자우편: postino78@korea.ac.kr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